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어찌나?

### 도교육청, 검색된 남북관계로 목적사업 추진 못하고 보관중

전북도교육청이 검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교육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면서 관련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를 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올해 기금 1억1000만원을 예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8월 남북교육교

류협력 조례를 제정해 매년 1억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남북관계가 검색된 현재 7억4천만원이 예치돼 있는 상태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남북교육교류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고, 그 당시 7억8000만원 가량을 북측에 지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8년 기금운영

계획을 세우고 북한 학생 교육분야 물론 품 지원, 북한 학생과 교원의 교육교류 활동사업 등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는 북한과의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등에 지원 토록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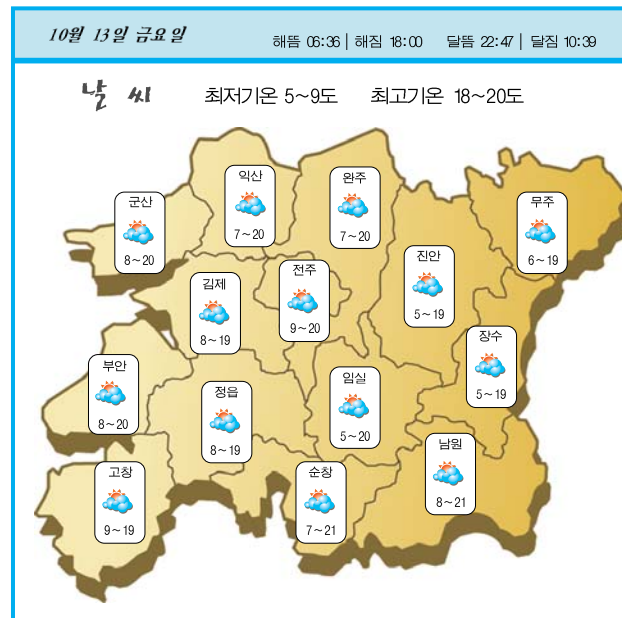
###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14일 출범

학생인권 증진과 학생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게 될 제5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가 14일 오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5기 학생참여위원 50명이 참석해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1년간 위원회를 이끌 대표·부대표·지역대표 등 집행부를 선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28명 등 총 5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5기 위원들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성숙 100년 비전' 심포지엄 개최

###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 필요성 강조

전북대학교가 성숙을 향한 100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발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12일 개최한 '성숙 100년 비전 심포지엄'에서 전북대 김영정 교수를 비롯한 4명의 발제자들은 각 분야에서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1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과제에 대해, 2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양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택윤 농촌진흥청 4차 산업혁명 대응단 부단장이 '4차 산업혁명과 농생명 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 농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2부 발제자로 나선 가이 사토시 일본 나카무라대학총장은 '대학과 지역의 공생발전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규슈 IoT커뮤니티'를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12일 개최한 '성숙 100년 비전 심포지엄'에서 전북대 김영정 교수를 비롯한 4명의 발제자들은 각 분야에서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1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과제에 대해, 2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설립한 규슈지역과 21개 대학이 연계해 지역 만물기에 공헌하는 후쿠오카 사례, 나카무라대학원대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연계 정책 등의 사례를 들며 지역대학과 지역이 긴밀히 연계해야 함을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김영정 교수(사회학과)가 '지역 경

쟁력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을 하라"라며 대학발전이 지역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 경쟁력 향상과 대학 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타 지역

의 경우에도 지역과 대학의 극심한 중앙의존 경향이 확인된다"며 "중앙으로부터의 행·재정 지원 확립과 지방 정치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대학 내부적으로는 교양교육 체제 혁신, 학과 교과 통합, 연구소 개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도내대학, 전북대에서 도서관 우수사례 공유

전북지역 대학 도서관들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를 통해 각 대학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 도서관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열고 특강과 우수사례 공유, 도서관 견학 등을 통해 친교를 나눴다.

박승재 전북대중앙도서관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대 양병호 교수가 '한국 현대사 재민에게 읽기'를 주제로 한 특강으로 본격 행사가 시작됐다.

이어 우석대 도서관 이현옥 사서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독서문화학교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고 오후 2부에서는 전북대 양정은 사서가 '무료 원문복사 제공 통계 분석을

통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정은 사서는 "전북대는 농·축산 분야의 606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열람하고 무료로 원문 복사와 통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09년 첫 서비스 시작 이후 20배 넘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를 전북지역 대학 전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착 인쇄학술지 목차 서비스와 뉴스레터 발송 담당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이후 전북지역 도서관 관계자들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립된 전북대 중앙도서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 3시 30분에는 공지영 작가 초청 북콘서트에도 함께했다.

/정해은 기자

### 군산교육지원청

### 기록관리 전국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한 2017년 기록관리 전국 기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여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체계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전국 47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기관별로 '가'에서 '바'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관리 서비스 및 업무개선 분야 등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95.7점의 우수한 점수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평균(62.9점) 및 전국 기관 평균(73.8점)보다 월등히 높아 기관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현황이 매우 우수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기록관리 운영으로 법령상 모든 기록관리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으며 기록전시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로 기록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권순=김판근기자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 전라북도 교육특구 포럼

2017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 2017. 10. 16. (일)

| 13:00~18:00 |

### 오펠리스 웨딩홀

- ▶ Session 1.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 ▶ Session 2.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는 고등학교 정책
- ▶ Session 3.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